 농촌진흥청	보 도 자 료	작성과	영양생리팀
	2017년 1월 24일(수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담당자	팀장 오영균 농업연구사 소경민
		연락처	063-238-7456
		제공일	2017. 1. 24.(총 5매)



설 연휴 반려견 돌보기 꿀팁!

- 사료는 이동 전 6~8시간 전에 줘야... 기름진 음식 주의해야 -

- 농촌진흥청(청장 정황근)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동안 건강하게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.
- 먼저,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. 지방이 많이 들어 있거나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비만 또는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 - 명절에는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채소나 과일에 노출되기 쉽다. 반려견이 양파와 마늘을 먹을 경우 적혈구가 손상돼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. 포도와 건포도 등은 아주 소량으로도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.
 - 파전이나 고기전처럼 기름지거나 뼈있는 음식 섭취로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도 잦다. 닭 뼈나 생선 가시처럼 날카로운 것을 삼키면 목에 걸리거나 위장 벽을 관통하기도 하므로 이런 음식은 아예 주지 않도록 한다.
-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반려견에게 장시간 여행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.
 - 사료는 출발하기 6시간~8시간 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은

수시로 줘야 한다. 이동 중 사료를 줘야 한다면 건식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 습식사료가 좋다.

- 어린 강아지는 어린아이같이 떨미증상을 쉽게 보일 수 있으므로 1시간~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산책하며 물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.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챙기는 것은 필수다.
-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료 제조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. 닭가슴살, 멸치, 양배추 분말, 밥 등을 이용해 연휴 동안 먹을 반려견 수제 도시락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<참고자료>.
- 반려견은 낮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. 평소 즐기는 장난감이나 이동형 집(크레이트)같은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.
 - 반려견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식표를 몸에 꼭 부착하고 연락처를 챙기도록 한다. 동물등록대상인 경우에는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.
 - * 내장형 칩을 한 경우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높음(개의 경우 2.5배 개선)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소경민 농업연구사는 “설 연휴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동물이 아프거나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소경민 농업연구사(☎ 063-238-74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자료>

설 연휴 반려견 돌보는 방법 소개

□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주요 음식

○ 초콜릿, 카페인 및 기타 메틸잔틴 함유 식품

- 메틸잔틴류에 속하는 물질(카페인, 테오브로민 등)을 함유한 식품은 사람에서는 다량 섭취에도 안전하나 동물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정맥, 중추신경계 이상 등 중독증을 유발함 * 테오브로민(theobromine; 3,7-dimethylxanthine)

제품 유형	총 메틸잔틴 함량
코코아분말	28.5 mg/g
달지 않은 초콜릿	16 mg/g
코코아 콩 껍질	9.1 mg/g; 0.5-0.85% 테오브로민
세미스윗 초콜릿	5.4-5.7 mg/g
스윗 다크초콜릿	
밀크초콜릿	2.3 mg/g
정제 초콜릿 캔디	1.4-2.1 g/kg
화이트초콜릿	극소량
코코아 콩	1-2% 테오브로민

- 동물에서 메틸잔틴류 물질에 의한 반수 치사량(LD₅₀, mg/kg)

메틸잔틴	동물	LD ₅₀ (mg/kg)
테오필린	개	300
	고양이	700
카페인	개	140
	개	250-500
테오브로민	고양이	200
	생쥐	837
	쥐	1,265

○ 포도, 건포도, 술타아너(씨 없는 포도)

- 반려견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알려지지 않은 독소를 함유하고 있음

○ 양파

- 사람과 달리 동물(개, 고양이, 소, 말)이 섭취할 경우 적혈구 손상 및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

○ 마늘

- 반려견에서 양파보다는 독성이 적지만 적혈구 손상 및 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

○ 아보카도

- 아보카도 열매, 잎 등 모든 부위가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소, 말, 염소, 토끼, 조류, 쥐 등에 잠재적 독성을 가지고 있음
- 동물에 따라 치사량은 다르지만 주로 가슴과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 곤란으로 폐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, 지방 함량이 높아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음

○ 마카다미아

- 반려견에서 주의가 필요한 식품으로서 섭취한지 12시간 이내에 뒷다리에 힘이 풀리고, 침울, 구토, 복통, 보행장애, 근육 떨림 등을 유발하나 보통은 1일~2일 사이에 회복함

○ 자일리톨

- 반려견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식품 섭취 후 30분 정도에 구토, 간 기능 저하, 저혈당에 따른 허약, 보행장애, 침울, 발작 등 중독증상이 나타남

○ 알콜

- 반려견은 소량의 알콜에도 보행장애, 기면, 진정, 저체온증, 대사성 산증, 구토, 설사, 간 부전 등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알콜이 포함된 음료나 상한 음식, 위생용품 등은 반려견의 입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함

□ 반려견을 위한 가정식(홈메이드 사료) 만드는 요령

- 사료원료 정하기: 개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를 중심으로 원료 선정 <사료 원료 예시>

연번	원료명	배합량
1	닭가슴살분말	70 g
2	밀치가루	30 g
3	황태분말	30 g
4	난황분말	70 g
5	브로콜리분말	10 g
6	양배추분말	10 g
7	들깨가루	30 g
8	고구마분말	100 g
9	쌀밥	400 g
10	난각분말	8 g
11	반려견용 영양보충제	2 g
12	물	240 ml
합계		1,000 g

- 원료 혼합 및 1차 반죽: 믹싱 볼에 준비된 원료를 넣고 혼합 및 초벌 반죽
 - * 손 반죽을 위한 정제수 또는 음용수 첨가량은 분말 형태인 사료원료 총합의 66~67% 권장(시작점) :
(예) 분말 330g일 경우 물 220mL 첨가한 후 반죽상태를 고려하여 증감 여부 결정
- 반죽 찌고 식히기: 찹기를 이용해 100°C에서 20~30분간 열처리 후 식힘
 - * 찹기에 찌진 1차 반죽을 손으로 2차 반죽할 수 있을 정도(35~36°C)까지 식힘
- 2차 반죽: 열에 약한 원료(예, 비타민제)는 이 단계에서 투입 권장
- 사료 성형: 사료를 자르기 좋도록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하거나 바로 알갱이로 성형
- 사료 썰기: 가래떡 모양으로 성형할 경우 도마와 칼을 이용해 급여 하기 수월한 크기로 자름
- 사료 급여 및 보관: 기호도 테스트를 위하여 즉시 급여 또는 급여 전까지 냉장 보관
 - * 냉장보관 3일~4일 이내에 급여하거나,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하여 건조(식품건조기) 처리 권장

□ 그림 자료



<그림1> 간식을 먹고 있는 강아지



<그림2> 가정에서 만든
(습식)수제사료